



축사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OECD 회원국중에서 가장 높은 6%대의 역동적 성장, 8%대의 수출증가, 108억불의 무역흑자라는 3高的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자리잡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에 의한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어,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급속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경제의 지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기술기반인 표준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대외경쟁력까지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새로운 표준을 창출하고 이를 국제표준화 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선진 산업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주력 기간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물론 미래 전략산업인 IT, BT, NT, 항공산업을 포함하여 세계 4강 진입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비전의 효율적인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기초 인 프라인 표준, 계량, 시험, 인증 등의 일류화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위해 “산업기술인프라 일류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세계 일류 수준으로 Up-grade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국가표준의 세계수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KS의 국

제표준과의 일치화를 완료하고, 일류 선진국의 국가 규격이나 국제표준을 실시간으로 도입하여 선진 수준의 국가표준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ISO/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 가입을 더욱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인 80%선으로 상향시킬 뿐만아니라 TC/SC의 간사 및 의장 수입을 확대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기술의 국제표준으로의 제안을 확대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셋째로 무역상 기술장벽을 타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개방에 의한 과실(즉 수출)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국가표준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산품위주의 국가표준에서 앞으로는 관광, 택배, 장례업 등 국민생활의 기초까지 국가표준의 제정을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국가표준이 국민생활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앞장서는 선구자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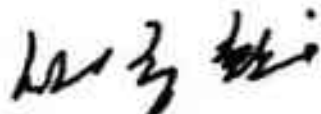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국가표준의 선진화계획도 정부와 민간의 혼연일체에 의한 혁신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산-학-연-관이 합심노력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국가표준이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우리 기업들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지』가 국내외 표준화동향을 비롯한 표준관련 제반 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중추적인 홍보지로서 새로운 면모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기술표준원 가족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을 기대합니다.

2003. 2.

산업자원부장관



기술표준 발간 1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 유영상

표준은 1961년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및 관련 연구소, 단체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굳은 신념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60~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표준은 산업의 소중한 인프라로서 밑거름이 되어왔으며, 품질수준의 척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표준이 산업전반의 새로운 이윤창출과 시장선점을 위한 도구로써 재인식되면서, 비야흐로 표준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표준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WTO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TBT 협정에 의해 국제표준의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독식하는 소리없는 표준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세계시장의 변화와 글로벌스탠다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탄생한 「기술표준」은 2002년 표준의 저변확산 및 표준 활성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임오년 한해를 힘차게 달려오면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표준분야를 대표하는 월간지로써 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관, 기업들의 소리를 모아 이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면서 담담한 목소리로 표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한달 남짓 지나 맞는 「기술표준」 발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술표준」의 발전과 희망에 대한 당부와 표준 정보 및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표준」은 국내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가는 길의 튼튼한 교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표준화는 개방과 자율을 통한 창의적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이란, 혼돈과 부정적인 경쟁구조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체계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들 요소들 간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애므로

써 비용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표준」은 앞으로 기업의 회계, 경영, 업무 프로세스, 기술, 조직 구조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산업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술표준」이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발전의 터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기술패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술개발역량과 함께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여부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세계표준이 못되면 시장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동시에 세계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세계표준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표준기술(Standard Technology)'을 개발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Standardization Technology)'이 결실하다 하겠습니다.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우리가 세계경쟁의 장에서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기술표준」은 기업과 정부, 학계와 연구소 등 표준관련 기관들이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화 하는데 견인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손자의 방법은, 현대사회의 정보전쟁과 부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상대에 대한 정보의 양뿐 아니라 질적 내용은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기술표준」은 이러한 정보를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수준과 외부의 기술정보들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길러주는 튜터(Tutor)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찬 출발을 한 재미년에도 많은 좋은 일들과 아울러 어려운 일들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도전과 응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발전과 성숙을 이뤄왔습니다. 지난 1년간 「기술표준」은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변화 가운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얻고자하는 자에게는 계획, 목표, 실천, 집념과 함께 이에 대한 견고하고 일관된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술표준」이 표준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초지일관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재미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더욱 발전하고 사랑받는 책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2003년 2월 「기술표준」 발간 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내 표준 정보와 지식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리라 확신하며 기념 축사를 맺습니다.